

보도시점 2025. 9. 10.(수) 15:00 (2025. 9. 11.(목) 조간)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 특성화고 지원 업무협약 체결...

- 실습 프로젝트 ‘내일을 짓다’ 지원으로 미래 건설기능인 양성 기반 조성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의정부공업고등학교, 한국건축시공기능장협회와 함께 건설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형 복합공종 실습훈련을 지원하는 ‘내일을 짓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일을 짓다’ 프로젝트는 의정부공고에서 진행되는 학교 교육과 건설 현장의 요구를 결합한 실습 중심의 현장 맞춤형 훈련으로,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훈련과정은 실제 공사 환경과 유사하게 구성돼, 기초 공정부터 복합공종 시공까지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 수업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시공 기능으로 연결하고, 지역 건설현장은 젊은 숙련 인력 유입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4개 기관은 미래건설 전문 인재로서의 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 미래건설 분야 맞춤형 교육과정 공동개발, 교육과정과 취업 연계 강화, 사업 홍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후 경기도 내 건설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내일을 짓다’ 복합공종 훈련을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실습교육 비용을 지원하고, 한국건축시공기능장협회의 전문건설기능인력이 학생들에게 손끝 기술을 전수하며, 교육청은 사례 확산과 행정 지원에 힘쓴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내일을 짓다’ 프로젝트는 단순한 실습을 넘어 미래 건설기능인들의 꿈과 경력을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교육기관·산업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건설 인력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취업부	책임자	부장	박수훈 (02-519-2121)
		담당자	대리	성가진 (02-519-2123)

